

법무 '친명 죄장' 정성호

장관·차관 후보자 추가 인선
광주·전남 출신 다수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전남·광주이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광주·전남여고) 전 질병관리청장, 류제명 과기정통부2차관 등 광주·전남 인사들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이로써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16곳 후보 지명·1곳 유임)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쌓았다"며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낙점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의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으로, 보수적 관료 체제를 가진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기재부 구윤철·산자부 김정관
복지부 정은경·행안부 윤호중
교육부 이진숙·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식약처 오유경·민정수석 봉옥
과기부2차관 류제명

변화시키고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발전에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구윤철,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유임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원 1·2차장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다.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을 임명했고, 기조실장으로는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봉옥 민정 수석과 전성환 정경통합수석도 이날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예술 꿈나무들 세계적인 예술가로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재단' 설립

뛰어난 기량을 갖춘 예술 꿈나무를 지원하기 위한 '호남예술제 재단'이 설립된다. <관련기사 16면> 광주일보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이자 미래 예술가들 요람 역할을 해온 호남예술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호남예술제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일보는 5억원을 출연하고 예술제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점차 기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29일 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회 호남예술제 시상식에서 "호남예술제는 문화예술계와 함께 이어온 지역의 대표 예술축제"라며 "올해 70회를 맞아 광주일보는 세계적 기량을 겸비한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호남예술제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예술인에게 도약의 발판이 된 호남예술제는 클래식을 비롯해 미술, 문학, 무용,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해 왔다"며 "호남예술제재단이 만들어지면 예술적 재능을 갖춘 꿈나무들이 세계적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금은 최대 100억 원을 목표로 확충해 호

남예술제 개최 70년

김남윤·신지아·김선희

문지영·황영성 등

세계적인 스타들 발굴

광주일보 기금 5억원 출연

100억원 목표 점차 확충

꿈나무들 발굴·육성해

세계무대 진출 지원 나서



김여송 회장

다. '바이올린계 대모'로 불렸던 고(故) 김남윤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해 '가족'의 의미를 탐색했던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황영성 등이 호남예술제를 거쳐갔다. 그동안 누적 75만여 명이 참가할 만큼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 종합예술제로서의 명성을 이어왔다. 이 같은 대회 역사는 지역 민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문화예술창달'이라는 광주일보의 사시(社史)와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광주가 '예향' (藝鄕)이라는 브랜드네이밍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데는 호남예술제의 파급력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1956년 6월 13일, 동방극장에서 열린 제1회 호남예술제는 지방 최대 규모로 치러져 화제가 됐다. 결선 날엔 극장 밖까지 관중이 몰리는 등 시민축제의 장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김여송 회장은 "지역의 예술계가 7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역사이자 이정표"라며 "향후 호남예술제재단이 창립되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던 '호남 예술'이 다시 한번 제2의 중흥과 도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폭염경보가 발효된 29일 오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일대 도로 위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열과 차량 열기가 뒤섞이면서 도로는 마치 물결이 이는 듯한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벌써 35도... 숨막히는 '찜통더위'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3일까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습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30일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28-35도를 보이겠고, 1일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4개 시·군(담양·곡성·구례·순천)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전남 18개 시·군(강진·광양·나주·보성·여수·영암·장성·장흥·화순·해남·고흥·완도·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1일 광주·전남에는 5-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구름 많으며 32도 안팎으로 오르는 찜통더위는 7월 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한밤의 119' 공공심야약국 - 구례 ▶6면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기 양궁대회 ▶18면

광주 세계문화축제도시 - 노벨상 작가 한강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주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곡수리 062)942-7200 / 일반번호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